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금 거래 실적 10배 최고  
14년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래기  
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공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5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2월 8일은 민족 최대명절 설입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실로 정겹고 반갑다. 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공동 선(善)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복을 받기 보다는 "많이 지으세요"라고 인사하자는 사람들도 많다. 복이란 지어야 하는 공덕의 산물이지 짓지 않는 복은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불경속에는 복을 살한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마치 복을 찾아가는 지도와도 같다. 경전속에 나타난 복을 살법을 찾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神)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남사물길총경)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절을 수리하라. 대중을 이간질하지 말고 서로 화합케 하라. 그리고 법을 청해 들어라. 이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중일아함경)

### 복은 재앙마저 이기고

복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의 과보는 인력의 원인이 되니 매우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것이다.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복이 없으면 고승과 괴로움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중일아함경)

복 있으면 즐거우나 복 없으면 괴로워라.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복을 받아야 인락할 수 있느니라. (중일아함경)

부모는 좋은 복전(福田)이다. (성선천자소문경)

복은 뜨거운 불이 태우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는다. 또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버려도 복은 파내려 가지 않는다. 나쁜 일과도 함악한 도적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을 때도 사람이 지은 복만은 훔쳐가지 못하리라. (불여잡이함경)

아는 것처럼 실천하는 수행자는 그 공덕이 바다와 같으니 그들이야말로 잘 길들이는 이의 제자라 말한다. 칠족같은 어둠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항상 중생을 위해 진리를 가르치니 그들은 출가자의 복발(福寶)이로다. (잡이함경)

중생은 복을 근본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느니라. 복은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항상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되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장야함경)

과수원을 만들고 다리나 배를 만들어 길 가까이 화장실을 지어 보시하면 항상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에 가게 된다. (중일아함경)

범부로서 복을 닦지 않으면 재물이 공백할 뿐 아니라 삼악도를 벗어나지도 못한 다. 그래서 불도 마음도 편하지 못하다. (중일아함경)

**장애인 포교 '움트는 새싹'** 15면

**불교다이어트 책 발간** 12면

**다라니경 한국작품 확실** 6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귀순불자 대부분 개종

## 남순지장회 해체위기... 대책절실

귀순불자들의 모임인 남순지장회가 창립 1년만에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불교계의 무관심과 타종교의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 개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순지장회는 지난해 2월 36명의 귀순 동포들이 모여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정기법회 및 사찰순례, 귀순동포 포교활동, 회원상호간 친목모임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회장을 비롯 8명만이 남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회장 김명철씨는 "그동안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했다"며 "모두 생업에 바빠 시간대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불교계의 무관심도 한몫 했다. 창립 당시에는 여러 스님과 재가법사들이 후원을 약속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여기에 개신교계의 조직적인 선교전략이 거들었다. 남순지장회 회원 박수현씨(경희대 한의대 휴학)는 "남순지장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교회에 나가고 있다. 생활비 지원과 직장 알선 등 교회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사교회는 귀순 학생들에게는 매

월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이 교회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한 귀순자는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니까 고맙지만 신앙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가지가 싫어 장학금을 안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나가고 싶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귀순자들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

부터 정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관계자는 △자매결연 △직업교육 수료후 전일 취업보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생활비와 직업훈련비 지원, 1교회 1귀순자 자매결연 사업을 벌이고 있다. 94년 귀순한 한용수씨를 후원하고 있는 초격스님(광명산원 원장)은 "최근 기독교인 후원이자 한씨의 생활비는 물론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한씨가 응했을 경우 아플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교인의 후원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 28일 실시하는 자선탁발을 통해 모금한 성금을 귀순불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일에 쓴다는 계획이다.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자선탁발로 마련된 성금은 북한동포 및 귀순동포, 국내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순지장회 지도법사단장 법타스님(광불협회장)은 "올해는 각사찰에서 한사람씩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로 탈출,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만도 7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대량탈북에 대비해 교계는 종단 또는 사찰차원의 정착 지원금과 프로그램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 작년 2월 36명 창립... 8명만 남아 개신교 생활비·직장알선 등 지원

#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아름다움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 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슬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느끼고 無言의 설법 듣는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일 주제를 갖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룬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가는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 알기사업"의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 월별 주제**
- 2월: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통도사
  - 3월: 한국의 색·선·면(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금산사 내사
  - 4월: 한국인의 얼굴(석굴암의 신비와 남산의 돌부처)-석굴암 남산
  - 5월: 禪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대흥사
  - 6월: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부석사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제주 존자암터 외
  - 7월: 나무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해인사
  - 8월: 신라의 바람(觀), 바람(風)-황룡사지 검은사지
  - 9월: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 불심-무량사
  - 10월: 한국인의 삶과 죽음(석동·석곽·부도의 의미)-화엄사 연곡사
  - 11월: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리나-운주사
  - 12월: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제주 존자암터 외  
참여 전문가 토론회

**2월 테마여행-통도사**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독특합니다.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상로·중로·하로전으로 구분해 있습니다. 부처님 진상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불상을 안모신 팔만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통도사의 근본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 연화문 축대의 정교함과 영축전의 황상탱화, 가람건축이 미복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불화, 감지굴다회경변상도 등 통도사 국보·보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과 자연과 인간과 불심의 조화에 또한번 감탄하실 겁니다. 통도사 박물관장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장 빙하스님이 안내 강연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첫 회에 동참하시어 97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가 안내**

- 출발: 2월 23일(일) 오전 7시·조계사 앞
- 안내: 빙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 & 회비: 3만원(중식 지참)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5333(일동수)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차안에서 느끼는 TV, 영화, CD원음의 감동- 현대 카AV시스템!**

비디오, CD, TV, FM, AM, TAPE, 음악CD 6매 자동선곡까지- 국내 최초 일체형 현대 카AV시스템

오디오로만 만족하던 카오디오에서 최첨단 비디오까지- 현대 카AV시스템은 생생한 영화, TV에서 6장 CD 자동선곡의 선명한 음악감상까지 자동차 생활에 최고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달릴때에는 원음의 감동으로, 머물때는 생생한 영상으로 배인타는 자동차-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 AV시스템 (HAW-41)  
4D FM 5단  
HDD CD CHANGER CONTROL  
(선곡기능 및 1.83.8.8.8)

■ HICD(2D)메인(HAW-2004)  
4D CD CHANGER  
HDD VIDEO ALP 16  
HDD 4D 5D 6D 7D 8D 9D  
오디오/비디오 1.83.8.8.8

■ CAR-TV(HT-51)  
8" TFT LCD TV  
HDD VIDEO ALP 16  
오디오/비디오 1.83.8.8.8

■ AV시스템 (HAW-41)  
4D FM 5단  
HDD CD CHANGER CONTROL  
(선곡기능 및 1.83.8.8.8)

■ HICD(2D)메인(HAW-2004)  
4D CD CHANGER  
HDD VIDEO ALP 16  
HDD 4D 5D 6D 7D 8D 9D  
오디오/비디오 1.83.8.8.8

■ CAR-TV(HT-51)  
8" TFT LCD TV  
HDD VIDEO ALP 16  
오디오/비디오 1.83.8.8.8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일석천금 불로써 서비스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YUNDAI